

국어(한문 포함)

1. 다음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내 안전 동아리 ‘안전 지킴이’ 대표 2학년 윤지수입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기획한 안전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오늘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사고 피해 통계에 따르면,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자동차를 피하다가 다친 사례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한 학생들 절대다수가 사고 당시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기가 어려워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응 속도가 늦어져서 위험합니다. 따라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 ①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실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화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③ 도입부에 사례를 제시하여 관심을 끈 후에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청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대표: 학교에 외부인이 아무 때나 드나들면, 소음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학교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주민 대표: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기를 선호하니 오전 9시 이전까지는 체육 시설 이용을 허용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의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수업권 보장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학 교 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잘 준수한다면 9시 이전에도 시설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시간에 대해 주민들에게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대표: 네. 주민 홍보 앱을 활용해서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나 더 제안할 것이 있는데, 수업이 없는 방학 동안은 주민들이 체육 시설을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① 상대의 의견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의견을 질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 전에 근거를 먼저 밝히고 있다.
- ④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여 새로운 제안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3.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 정현종,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 ① 대상이 지닌 속성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청유형 어투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화자의 모순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4.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슬프다! 여러 짐승의 연설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세상에 불쌍한 것이 사람이다. 내가 어찌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욕을 보시고! 사람은 만물 중에 귀하기로 제일이요, 신령하기도 제일이요, 재주도 제일이요, 지혜도 제일이라 하여 동물 중에 제일 좋다하더니, 오늘날로 보면 제일로 악하고 제일 흉귀하고 제일 음란하고 제일 간사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어리석은 것은 사람이다. 까마귀처럼 효도할 줄도 모르고, 개구리처럼 분수 지킬 줄도 모르고, 여우보담도 간사한, 호랑이보담도 포악한, 벌과 같이 정직하지도 못하고, 파리같이 동포 사랑할 줄도 모르고, 창자 없는 일은 게보다 심하고, 부정한 행실은 월양새가 부끄럽도다. 여러 짐승이 연설할 때 나는 사람을 위하여 변명 연설을 하리라 하고 몇 번 생각하여 본즉 무슨 말로 변명할 수가 없고, 반대를 하려 하나 현하지변(懸河之辯)을 가지고도 쓸데가 없도다. 사람이 떨어져서 짐승의 아래가 되고, 짐승이 도리어 사람보다 상등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 안국선, 「금수회의록」에서 —

- ① 대화를 통해 대상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② 감각적 묘사를 통해 대상을 개성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우화 형식을 통해 대상의 양면성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④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대상들의 갈등을 첨예하게 나타내고 있다.

5.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시의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 (나)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 있기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움이다.
- (다) 시는 사람의 내면에만 담아 둘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탄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시를 감상하는 것은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 내는 것이다.
- (라) 그리움이 담겨 있는 시가 많은 것은 그리움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다) - (나) - (라)
 ③ (다) - (가) - (나) - (라)
 ④ (다) - (나) - (가) - (라)

6. 다음 글의 ㉠ ~ ㉤을 <지침>에 따라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 △△시에서 개최하는 “△△시 취업 박람회”

1. 목적: ㉡ 지역 브랜드 홍보와 향토 기업 내실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행사 개요
 가. 일자: 2023. 11. 11.
 나. 장소: △△시청 세종홀
 다. 주요 행사: 구직자 상담 및 모의 면접, ㉢ △△시 취업 지원 센터 활동 보고
3. 신청 방식: ㉣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지 침> —

- 제목을 중복된 표현 없이 간결하게 쓴다.
 ○ 목적과 행사 개요를 행사의 주요 대상인 지역민과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 ① ㉠을 ‘△△시 취업 박람회 개최’로 수정한다.
 ② ㉡을 ‘지역민의 취업을 제고’로 수정한다.
 ③ ㉢을 ‘△△시 소재 기업의 일자리 홍보’로 수정한다.
 ④ ㉣을 ‘행사 10일 전까지 시청 누리집에 신청서 업로드’로 수정한다.

7. 밑줄 친 부분을 고유어로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생님께서 오늘 영면(永眠)하셨다. → 돌아가셨다
 ② 공무원은 국민을 기망(欺罔)해서는 안 된다. → 속여서는
 ③ ○○시는 금명간(今明間) 공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일찍
 ④ 주무관들에게 회의 시간이 바뀌었다고 공지(公知)했다. → 알렸다

8.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翩翩黃鳥 펄펄 나는 피꼬리
 雌雄相依 암수 서로 정다운데
 念我之獨 외롭구나 이내 몸은
 誰其與歸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 유리왕, 「黃鳥歌」 —
- (나) 秋風唯苦吟 가을바람에 오직 애써 시만 읊을 뿐
 世路少知音 세상길에 날 아는 이 거의 없는데
 窓外三更雨 창밖에는 한밤중 하염없는 비
 燈前萬里心 등불 앞엔 만리를 달리는 마음
 — 최치원, 「秋夜雨中」 —

- ① (가)의 ‘黃鳥’는 화자에게 외로움을 유발한다.
 ② (나)의 ‘秋風’은 화자에게 외로움과 고뇌를 불러일으킨다.
 ③ (가)의 화자는 ‘相依’를 바라고, (나)의 화자는 ‘知音’을 그리워한다.
 ④ (가)의 화자는 ‘與歸’를 지향하려 하고, (나)의 화자는 ‘萬里心’을 벗어나려 한다.

9.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보, 영감. 중한 가장 매품 팔아먹고 산단 말은 고금천지 어디 가 보았소? 가지 마오. 불쌍한 영감아, 가지 마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한들 죽사리까? 제발 가지 마오. 병영 영문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종신 골병이 든답디다.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 마오.” 홍보 자식들이 저의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거위처럼 고개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시오?” “오냐.” “아버지 병영 다녀오실 때 나 담뱃대 하나만 사다 주오.” “이런 후레아들 같으니라구.” 또 한 놈이 나오며, “아버지, 병영 다녀오실 때 나 풍안 하나 사다 주시오.” “풍안은 무엇 하게?” “뒷동산에 가서 나무할 때 쓰면, 눈에 먼지 한 점 안 들고 좋답디다.” 홍보 큰아들이 나와 앉으며, “아고, 아버지!” “너는 왜 또 부르느냐?” “아버지 병영 다녀오실 때, 나 각시 하나 사다 주시오.” “각시는 무엇 하게?” “어머니 아버지 재산 없어 날 못 여위어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 할라요.” 홍보가 병영 길을 허유허유 올라가며, 신세 한탄 울음 울며, “아고, 내 신세야. 누군 팔자 좋아 부귀영화 잘 사는데, 내 어이하여 이 지경인고?”

— 「홍보가」에서 —

- ① 홍보는 병영에 가서 매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려 한다.
 ② 아내의 말을 들은 홍보는 매품팔이하는 것을 유보하려 한다.
 ③ 홍보 자식들은 병영에 가는 아버지에게 태연히 부탁하고 있다.
 ④ 홍보는 병영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10.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병민이는 소정(所定)의 금액을 기부했다.
 ② 사소한 일에도 관심(觀心)을 가져야 한다.
 ③ 감사의 표시(表視)로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
 ④ 우리나라는 여러 지역(地役)에서 축제가 열린다.

11.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시대에는 여러 차례의 전란을 겪으며 서적의 손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서적을 대량으로 찍어낼 필요가 생겼고, 그 결과 자연스레 금속활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고려인은 청동을 녹여서 불상이나 범종 등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다. 이러한 고려인에게 금속활자를 제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고려인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 진흙에 가까운 고운 모래를 사용했다. 이 모래를 상자 속에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목활자를 찍어 눌러서 틀을 완성했다. 그런 다음 황동 액체를 부어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고운 모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 모래는 황동 액체를 부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활자가 파손되거나 조잡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할 때는 목활자의 경우와 달리 유성먹이 필요했다. 하지만 고려인은 이미 유성먹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속활자를 사용한 인쇄도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다.

- ① 고려인은 범종을 만들 때 황동을 사용했다.
- ② 고려인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 목활자를 사용했다.
- ③ 고려인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 황동 틀을 사용했다.
- ④ 고려인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 목활자와 달리 유성먹을 사용했다.

1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시대에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무속을 탄압했다. 도성 내에 무당의 거주와 무업 행위를 금하고, 무당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의료기관인 동서활인서에서도 봉사하게 하였다. 이 중에서 무세(巫稅)는 고려 후기부터 확인되지만, 정식 세금으로 제도화해서 징수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였다. 제도적 차원에서 실시한 무세 징수로 인해 무당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무세 징수의 효과는 컸지만, 본래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무속을 근절한다는 명목에서 징수한 세금이 관에서 사용됨에 따라 오히려 관에서 무당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인해 무당의 위세와 역할은 크게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무당이 국가적 차원의 의례를 주관하던 전통은 사라졌고, 성황제를 비롯한 고을 굿은 음사(淫祀)로 규정되어 중단되었다.

- ① 무당은 관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도 얻었다.
- ② 무당은 치유 능력을 인정받아 의료기관에서 일하였다.
- ③ 무당은 고려와 조선에 걸쳐 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 ④ 무당은 국가 의례에서 배제되어 고을 의례를 주관하면서 권위가 약화되었다.

13.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옛 문헌은 한문이든 한글이든 지금과 같은 가로쓰기가 아닌 세로쓰기로 되어 있었다. 물론 외국인이 펴낸 대역사전이나 한국어 문법서의 경우, 알파벳을 쓰기 위해 가로쓰기를 택했다. 1880년에 리델이 편찬한 『한불사전』이나 1897년에 게일이 편찬한 『한영사전』은 모두 가로쓰기 책이다. 다만 푸칠로가 편찬한 『로조사전』은 러시아 문자는 가로로, 그에 대응되는 우리말 단어는 세로로 쓴 독특한 형태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가로쓰기 책은 1895년에 이준영, 정현, 이기영, 이명선, 강진희가 편찬한 국한 대역사전 『국한회어(國漢會語)』이다. 국문으로 된 표제어를 한문으로 풀이한 것은, 국한문혼용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서문에는 글자와 행의 기술 방식, 표제어 배열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이 방식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의 서적을 본뜬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 놓았다. 주시경의 가로쓰기 주장이 1897년에 나온 것을 고려하면, 『국한회어』의 가로쓰기는 획기적이다. 1897년에 나온 『독립신문』은 띄어쓰기를 했으며 세로쓰기를 했고, 1909년에 발간된 지석영의 『언문』, 1911년에 편찬 작업을 시작한 국어사전 『말모이』 정도가 가로쓰기를 했다.

- ① 『한불사전』, 『로조사전』, 『언문』, 『말모이』는 가로쓰기 책이다.
- ② 1895년경에는 가로쓰기 사용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 ③ 가로쓰기가 시행되면서 국한문혼용과 띄어쓰기가 활성화되었다.
- ④ 『국한회어』는 가로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서양 책의 영향을 받았다.

14. 밑줄 친 부분의 ‘-기’의 문법적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수진이는 돌연 허공을 보기 시작했다.
- ② 경주마는 속도는 둘째치고 크기도 놀라웠다.
- ③ 나무가 굴기는 했지만 열매는 얼마 안 달렸다.
- ④ 토끼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없었다.

15.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벌에 쏘여 얼굴이 부어 있었다.
- ② 석공은 망치와 정으로 바위를 부렸다.
- ③ 소가 내 엉덩이를 받아 크게 다칠 뻔했다.
- ④ 요즘 운동을 못 해서 체중이 계속 불고 있다.

16. (가) ~ (다)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오후의 태양이 뜨겁게 (가) 하고 있었다.
- 만료된 비자를 (나) 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았다.
- 이번 무역 협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다) 되어 있다.

- | | (가) | (나) | (다) |
|------|-----|-----|-----|
| ① 작열 | 갱신 | 개재 | |
| ② 작열 | 경신 | 계재 | |
| ③ 작렬 | 갱신 | 계재 | |
| ④ 작렬 | 경신 | 개재 | |

17.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법을 자유와 대립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법을 혐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법 없이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이상적인 사회질서를 주장했던 자유 지상주의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몽테스키외는 인간이 법과 동시에 자유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이 법 밖에서 자유를 찾으려 한다면,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온 정처 없는 노예처럼 된다고 하였다. 자유는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결국 자유와 법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 ① 법은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 ② 자유가 없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도 확립될 수 없기
- ③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는 법에 의해서만 확립될 수 있기
- ④ 법과 자유가 있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

18.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육각형의 벌집 모양은 자연이 만든 경이로운 디자인이다. 이 벌집의 과학적인 구조는 역사적으로 경탄의 대상이었는데, 다윈은 벌집을 경이롭고 완벽한 과학이라고 평가했다. 벌집의 정육각형 구조는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이다. 이 구조는 (가) 는 이점이 있다. 벌이 밀랍 1온스를 만들려면 약 8온스의 꿀을 먹어야 한다. 공간이 최적화됨으로써 필요한 밀랍의 양이 줄어, 벌집을 짓는 데 드는 노력과 에너지가 최소화된다. 이처럼 벌집은 과학적으로 탄탄하고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디자인이다. 게다가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견고하고 가볍고 실용적이면서 아름답기까지 한 이 구조를 닮은 건축 양식이나 각종 생활용품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나) 는 뜻이다.

- ① (가): 벌집을 짓는 데 소요되는 노동량을 최대화한다
(나): 자연의 구조인 벌집이 인간의 창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
- ② (가): 벌집을 짓는 데 소요되는 노동량을 최대화한다
(나): 인간이 만든 디자인은 자연이 만든 디자인보다 뛰어날 수 없다
- ③ (가): 벌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밀랍의 양이 적게 든다
(나): 자연의 구조인 벌집이 인간의 창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
- ④ (가): 벌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밀랍의 양이 적게 든다
(나): 인간이 만든 디자인은 자연이 만든 디자인보다 뛰어날 수 없다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언어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변화 과정을 거친다. 언어의 변화 원인에는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등이 있다. 이로 인해 단어의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단어의 의미 변화는 대략 세 유형으로 나뉜다. ‘뒹(땀)’은 ‘땀’ 또는 ‘진지’를 뜻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제사 때 신위 앞에 올리는 진지로 국한해서 쓰이고 있다. ‘지갑’은 원래 종이로 만든 것에만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가죽이나 형겔 따위로 만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사용한다. ‘어여쁘다’는 본래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아름답다’로 그 뜻이 바뀌었다.

- ① ‘지갑’의 의미가 변화한 것은 언어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 때문이다.
- ② ‘얼굴’은 ‘형체’를 뜻하였으나 ‘안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뀐 것은 ‘지갑’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
- ③ ‘인정’은 ‘뇌물’을 뜻하였으나 ‘사람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어여쁘다’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
- ④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일부를 지시하였으나 무생물에도 사용하게 된 것은 ‘뒹(땀)’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

2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셸 교수는 ‘마시멜로 실험’을 하였다. 아동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15분간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주겠다고 한 뒤 아이가 못 참고 먹는지 아니면 끝까지 참는지를 관찰하였다. 아이들이 참을성을 발휘한 시간은 평균 2분이었지만, 25%의 아이들은 끝까지 참아 내 마시멜로를 더 먹을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12년이 지나서 당시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이다. 1분 이내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15분간 참을성을 발휘한 아이들은 1분 이내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보다 대학 진학 시험 점수 평균이 훨씬 더 높았다. 이 실험 결과는 감정이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큰 사람이 미래의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후 비슷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마시멜로에 뚜껑을 덮어 두고 기다리게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실험 결과 뚜껑이 없이 기다리게 했던 경우보다 뚜껑을 덮었을 때 두 배 가까이 더 아이들이 잘 참을 수 있었다. 뚜껑 하나라는 아주 작은 차이가 아이들의 참을성을 크게 향상시킨 셈이다.

- ①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 ② 자기 통제력은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
- ③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 ④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아동은 유아기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다.